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과 정치엘리트의 전략적 행위가 투표율 변화에 미치는 영향: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사례분석*

안 정 윤 | 서울대학교
강 연 구 | 서울대학교

본 연구는 소선거구 양당제 선거제도에서 발전한 대표적인 두 이론이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별 투표율 분석에 지니는 설명력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에 초점을 두는 '합리적 선택모형'과 경쟁력 있는 후보들의 전략적 선거활동에 초점을 두는 '전략적선거활동모형'을 2표병립제 하에서 다당경쟁의 특성을 띠는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 제도에 적용하는 경우 예상되는 이론적, 경험적 분석의 적실성을 검토한다. 특히, '전략적선거활동모형'을 한국 상황에 적용하기 위한 새로운 경험적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분석에 적용한다. 본 연구의 경험적 분석 결과는 한국의 유권자들의 경우 선거경합도(closeness)에 대한 인식을 통해 투표에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합리적 결정을 내릴 뿐 아니라 치열한 선거경쟁에 대처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선거비용지출액을 늘리는 정치엘리트들의 전략적 선거활동에 의해 투표 참여에 추동되기도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제18대 총선의 각 지역구별 투표율 변화에 후자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 향상을 위해서는 정치엘리트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다양한 노력 가운데 법정한도액 내에서 효과적인 선거비용지출 전략 수립이 필연적임을 함의한다.

주제어: 총선투표율, 선거의 경합도, 선거비용지출액, 2표병립제, 다당경쟁

* 본 논문에 사용된 두 가지 집합자료를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역구별 투표율 자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확보해 주신 서울대 박찬욱 교수와 지역구 후보자별 선거비용지출액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주시고 본 연구에 이용을 허락해 주신 서울시립대 임성학 교수에게 감사드립니다.

I. 서론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이유와 그 집합적 결과물인 투표율의 변화는 현대 대의민주주의의 안정 및 발전과 관련하여 미국을 비롯한 서구 여러 나라의 선거 사례를 통해 활발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이다(Downs 1957; Riker and Ordeshook 1968; Ferejohn and Fiorina 1974, 1975; Caldiera and Patterson 1982; Patterson and Caldiera 1983; Cox and Munger 1989; Berch 1993; Kushner 1997; Jackson 1997, 2002; Bendor et al 2003; Abramson 2007). 한국의 각종 선거 역시도 개인적 수준의 설문자료를 이용한 투표 참여 결정요인 분석(이남영 1992; 박찬욱 1993; 정진민 1994) 및 당선자 결정에 미치는 요인 분석(이준한·임경훈 2005; 박찬욱·김경미·이승민 2008) 등 다양한 주제에 걸쳐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집합자료를 이용한 투표율 변화에 대한 분석은 서구와 달리 그 연구 결과가 미진한 상태이다. 연구의 주제 역시 각 정당의 득표율이나 의석 점유율 또는 당선율의 변화, 그리고 역대 선거에서의 투표율의 변화추세와 같은 기술적 분석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방식의 분석은 특정 정당 혹은 정당 후보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나 동향을 살피는 근거 자료로서 선거결과의 전체적인 파악에 도움을 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변화의 원인에 대한 설명이 빈약하기 때문에 그 결과물을 과학적 예측에 이용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고 할 수 있다.¹⁾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문제인식을 통해 기술적 분석에 국한되었던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의 집합자료를 활용하여 각 지역구 당선자 선출과정에서 나타나는 투표율 변화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투표율 분석과 관련된 서구의 두 가지 대표적인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고 그러한 논의들이 한국의 선거분석에서 지니는 설명력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은 한국의 역대 선거를 통해 관찰되는 지속적인 투표율 감소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정치엘리트들의 선거캠페인 전략 수립과 같은 현실정치에도

1) 정치사회현상에 대한 연구방식은 설명과 예측에 중심을 두거나 서술 및 해석 등에 중심을 두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정치사회현상에 대한 다양한 연구방식에 대해서는 Little(1990)을 참조할 것.

합의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집합적 수준의 투표율 분석과 관련된 두 이론 가운데, 개별 유권자는 투표참여에 따른 기대효용을 계산하고 이러한 개별 유권자들의 합리적 선택의 집합적 결과가 투표율에 변화를 가져온다는 '합리적 선택모형(Downs 1957; Riker and Ordeshook 1968; Ferejohn and Fiorina 1974, 1975; Aldrich 1993)'은 이미 한국의 기존 연구들에서 많이 다루어진 주제이다(김욱 1998, 2002; 조성대 2006). 특히 페리존과 피오리나(1974)의 수리모형이 제시하는 바에 따라 선거경쟁의 치열함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과 투표율 변화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여러 연구가 진행되어왔다(김재한 1993; 김영태 2000; 황아란 1996). 그러나 '합리적 선택모형'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비판과 경험적 연구들이 보이는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극복하고자 대안적 모델로 제시된 정치엘리트들의 '전략적 선거활동모형(Cox and Munger 1989; Jackson 1997, 2002; Hillygus 2005; Nickerson 2005)'은 아직까지 한국적 적용이 전무한 상태이다. 이 이론은 선거경쟁의 치열함과 투표율의 변화 사이에 직접적 연관성이 있다는 '합리적 선택모형'과 달리, 선거경쟁의 치열함은 이에 대처하고자 하는 정치엘리트들이 쏟는 전략적 선거활동에 의해 매개됨으로써 간접적으로 투표율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투표율 변화에 대한 설명을 유권자 중심적 시각에서 정치엘리트 중심적 시각으로 전환한 것이다.

정치엘리트들의 '전략적 선거활동모형'이 한국의 선거분석에 적용되기 어려웠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정치엘리트들의 선거활동을 경험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선거자료를 구하기 어려웠던 특수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민주화 이전 시기 및 그 직후의 시기까지도 후보자들이 지출하는 선거자금의 출처 및 지출 내역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불공정 선거운동 등으로 인해 정치엘리트들의 선거운동에 대한 객관적 지표를 마련하기 힘들었던 것이다. 다행히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 등을 거치면서 시민사회에 의한 선거운동 감시, 감독이 강화되고, 선거비용의 투명성 향상과 공정선거운동이 정착되면서 후보자들의 자발적 선거비용 신고액 역시 그 신뢰성을 확보해가고 있는 중이다(신명순·진영재 2001; 임성학 2005). 이러한 변화는 한국의 선거분석에 '전략적 선거활동모형'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증가하는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합리적 선택모형'과 '전략적 선거활동모형'의 설명력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관찰되는 각 지역구별 후보자 투표율을

통해 검증해보고자 한다. 또한 두 이론이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변화에 대해 지니는 상대적 설명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소선거구제 양당제라는 서구, 특히 미국적 선거환경에서 발전된 두 이론을 한국의 선거분석에 적용할 경우 예상되는 적실성의 문제를 검토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이론적, 방법론적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전략적 선거활동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한국의 선거제도에 규정된 법정선거비용 한도액이 지니는 문제점을 서구의 정치엘리트들의 전략적 선거활동에 따른 선거비용지출과 관찰등가성(observational equivalence)²⁾을 지닌 지표를 개발함으로써 해결한다.

본 연구는 또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및 후보자별 선거비용지출액에 관한 자료를 회귀분석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관찰되는 지역구별 투표율의 변화는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에 좌우되기보다 정치엘리트들의 선거운동에 의해 추동된다는 사실을 보인다. 이는 투표율 분석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한국 사례에 적용함으로써 그 논의의 일반화를 위한 경험적 근거사례를 늘렸을 뿐 아니라 경쟁하는 두 이론이 한국 사례에서 지닌 설명력에 대한 평가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가 지닌 이와 같은 함의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집합자료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개별유권자 수준의 다양성을 밝혀내지 못하고 지역구별 투표율의 평균적 변화 양태에 대한 설명에 머무르는 한계를 지닌다. 이는 집합자료 분석이 갖는 일반적 한계이지만 한편으로는 개별유권자 수준의 설문자료 등의 확보를 통해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는 출발점을 제공한다. 둘째, 급변하는 한국의 선거환경을 고려할 때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국한된 분석 결과는 한국 선거에서 관찰되는 지역구별 투표율 변화 원인에 대한 일반론이라고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하겠다. 오히려 본 논문의 결과는 역대 국회의원 선거 및 향후 국회의원 선거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비교분석을 시도함으로써 그 적실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에서는 우선 투표율 변화를 설명하는 두 이론에 대한 좀 더 상세한 검토를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고 다음으로 한국 선거제도의 특성과 그에 따른 이론적 논의

2) 관찰등가성은 정치사회학적 개념(concept)이 서로 다른 정치적 맥락에서 사용되는 경우 그러한 개념이 의미하는 바를 동일하게 측정해내기 위해 경험적으로 등가의 의미를 갖는 지표를 이용해야한다는 논의를 통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애드콕과 콜리어(Adcock and Collier 2001)을 참조할 것.

의 적용 가능성을 타진한다. 이를 바탕으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의 각 지역구별 투표율 변화 원인에 관한 경험적 분석과 그 결과를 제시한다. 결론에서는 경험적 연구 결과가 지니는 정치적 함의를 논의한다.

II. 본론

1. 기존이론검토

1)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모형

투표참여 결정과 관련하여 개별유권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논의한 최초의 연구는 다운즈(Downs 1957)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유권자들의 투표참여 여부는 참여에 따른 효용과 비용이라는 두 가지 요인에 의해 좌우되며 참여에 대한 기대효용이 비용을 넘어설 때에만 참여의 결정을 내린다. 이 때 참여의 효용은 개별 유권자가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자가 당선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자신의 투표가 선거결과에 결정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확률에 따라 가중됨으로써 결정된다. 이러한 논의를 잘 알려진 수리모형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R = PB - C \quad (1)$$

수식(1)에서 R은 투표참여에 따른 보상(Reward), P는 개별유권자의 투표가 선거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확률, B는 유권자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자가 당선되었을 경우 얻게 되는 이익(Benefits), 그리고 C는 투표참여에 따른 비용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유권자는 $R > 0$ 인 경우, 다시 말해 $PB > C$ 인 경우에만 투표에 참여하고자 한다. 그러나 투표참여의 비용이 아무리 적다고 할지라도 개별유권자의 투표가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확률이 너무 작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거에서 비용은 효용을 초과하게 되고 따라서 유권자가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비합리적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라이커와 오데슈크(Riker and Ordeshook 1968)은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은 투표에 참

여하지 않는 것이라는 불투표의 역설(paradox of nonvoting)을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는 다운즈(1957)의 논의를 확대하여, 유권자들은 민주주의를 지속시키기 위한 희망, 시민적 의무감 등 다양한 이유에 의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유권자들은 선호하는 후보자의 당선으로부터 얻게 되는 이익(B) 이외에도 참여를 통해 다양한 요인들로부터 효용을 얻게 되고 이러한 추가적인 효용은 참여의 기대효용이 비용보다 커지도록 만듦으로써 참여 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한 수리모형은 다음과 같다.

$$R = PB - C + D \quad (2)$$

즉 수식(2)는 유권자들의 투표참여에 따른 기대효용의 증가를 반영하는 다양한 요인들로부터 얻어지는 효용인 D를 포함하고 있다.

라이커와 오데슈(1968)이 제시한 두 번째 방안은 위의 수식에서 P에 대한 새로운 해석에서 찾을 수 있다. 그들에 따르면, P는 개별유권자가 투표참여를 통해 선거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절대적 확률이 아니라 유권자가 선거경쟁이 얼마나 치열한가에 대한 예측을 통해 자신의 한 표가 선거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한 주관적 확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선거경쟁이 매우 치열한 양상을 보이는 경우 유권자들은 P의 값을 높게 설정하고 이러한 P값의 변화가 $R > 0$ 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라이커와 오데슈(1968)의 논의는 현실에서 관찰되는 유권자의 투표참여가 합리적 행위임을 밝힌 이론적 근거가 되었으며 동시에 선거경쟁의 치열함에 대한 측정지표인 선거경쟁도(closeness)와 투표율의 변화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수많은 경험적 연구를 촉발하였다.

다운즈(1957)의 논의를 이론적으로 발전시킨 라이커와 오데슈(1968)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투표참여 결정에 대한 합리적 선택모형은 이론적, 경험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론적인 측면에서 페러존과 피오리나(Ferejohn and Fiorina 1974)는 P를 유권자의 주관적 확률로 간주할 경우에도 여전히 참여의 결정은 비합리적일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는 아무리 치열한 선거경쟁이 이루어질지라도 개별유권자의 한 표가 선거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확률은 여전히 낮기 때문에 치열한 선거에서도 개별 유권자들이 행사하는 한 표의 도구적 가치(instrumental value)는 아주 낮다는 것이다. 경험적인 측면에서는

선거경쟁도가 투표율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이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기껏해야 집합자료를 이용한 연구들 사이에서는 선거경쟁도와 투표율 사이의 정(+)의 상관관계가 확인되고 있을 뿐, 개별 유권자 수준의 자료를 이용한 연구들에서는 선거경쟁도가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수임이 드러났다.

결국 현재까지도 투표율의 변화 원인을 설명하기 위한 '합리적 선택모형'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수용과 거부의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유권자의 기대효용을 구성하는 항목들인, P, B, D, C 등에 초점을 맞추었던 기존의 논의에서 벗어나 합리성의 개념 자체에 대한 인식을 재구성하려는 시도도 보인다.³⁾

아래에서는 위와 같이 개별 유권자들의 합리적 선택에 초점을 맞춰 투표율 변화를 설명하고자 한 연구전통과 달리 경쟁적 선거환경에 대처하는 정치엘리트들의 전략적 선거활동에 초점을 맞춰 투표율의 변화를 설명하는 이론적 전통에 대해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2) 정치 엘리트의 전략적 선거활동모형

투표율의 변화에 관한 두 번째 대표적 이론은 치열한 선거경쟁에 대처하기 위한 정치 엘리트들의 다양한 전략적 선거활동이 투표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전략적 선거활동모형'이라 할 수 있다. 이 이론은 페러존과 피오리나(1974)의 지적과 같이 선거경쟁도가 직접적으로 투표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며, 선거운동본부와 정당, 후보자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능동적인 캠페인 활동(campaign activity)이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나오게끔 만드는 선거과정의 역동적 측면을 선거경쟁도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한다.

투표율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엘리트들의 전략적 선거활동의 가장 대표적인 연구는 콕스와 멩거(Cox and Munger 1989)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들에 따르면, 유권자들의 주관적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경쟁도가 직접 투표율

3)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연구로 벤더와 그의 동료들(Bendor et al. 2003)을 들 수 있다. 이들은 투표율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효용의 극대화 또는 최적화에 근거한 합리성에 대한 가정을 이용하는 대신 학습 또는 지식 획득(learning)에 따라 수용되는 합리성(adaptive rationality)이라는 가정을 이용한 행위모델(behavioral model)을 제시하고 있다.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선거환경이 정치엘리트들의 위기감을 자극하고, 그로 인해 정치엘리트들은 더욱 많은 노력을 선거활동에 쏟으며 그 결과 투표율이 상승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미국식 양당제적 경쟁에서 양 당의 후보자가 지출하는 선거비용총액을 정치엘리트들이 경쟁적 선거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적 선거활동에 대한 대표적인 경험적 측정 지표로 제시하였다.

콕스와 멩거(1989)의 논의는 투표율 변화가 선거의 경쟁에 대처하는 정치엘리트들의 활동을 매개로 유권자의 참여에 영향을 미치면서 일어난다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들은 정치 엘리트의 전략적 선거활동이 어떤 방식으로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매개하는지에 대한 인과메커니즘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을 지닌다. 다시 말해 투표참여의 최종결정은 유권자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치엘리트들이 치열한 선거경쟁에 대처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취한 선거활동은 다양한 방식으로 유권자들의 투표참여 결정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고, 그 결과 집합적 수준에서의 투표율 변화를 가져올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정치엘리트들의 선거활동과 유권자들의 투표참여결정과의 매개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것이다.

앨드리치(Aldrich 1993)는 콕스와 멩거(1989)의 연구에 미시적 연결고리를 제공함으로써 그 이론적 기반을 강화한다. 그에 따르면 치열한 선거경쟁에 대처하기 위한 정치엘리트들의 전략적 선거활동은 더 많은 선거비용 지출을 낳게 되며, 이러한 선거비용은 유권자들에게 선거와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효과를 지닌다. 유권자들은 늘어난 정보를 통해 후보들에 대해 더 높은 관심을 지니게 되며 그 결과 각 후보들이 제시하는 정책적 입장의 차별성을 더욱 분명히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후보자간 차별성의 명확한 인식은 유권자의 투표참여에 따른 기대효용 계산에서 이익(B)을 증가시킴으로써 투표율을 상승시킨다고 보았다. 이러한 논의는 또한 개별 유권자가 선거의 치열함을 직접 인지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정치엘리트들이 정보의 '공급자'로서 당선을 위한 '투자'를 하게 되고 유권자는 일종의 '소비자'로서 투표참여에 따른 기대효용 계산에서 비용(C)과 의무(D)의 가치에 대한 변화를 수반한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치열한 선거경쟁에 대처하는 정치엘리트들의 '전략적 선거활동모형'의 이론적 타당성은 다양한 경험적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A. Jackson 1997, 2002; John G. Matusaka 1995; John G. Matusaka and Filip PaldaRobert 1999; Joseph Kushner,

David Siegel & Hannah Stanwick 1997; Paul S. Mattin 2003, Nickerson 2005). 예를 들어 잭슨(Jackson 2002)은 엘리트들의 선거 운동에 의한 정보 제공은 유권자가 지불해야 할 선거정보 획득비용(C)을 0에 가깝게 낮추어 투표율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인다. 또한 너커슨(Nickerson 2005)은 전화홍보와 문고리형전단지(door hanger) 배포 등과 같은 활동이 막연하고 공적인 시민적 의무감(D)을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것으로 전환시킴으로써 투표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다. 위와 같은 논의를 고려할 때, 투표율 변화에 대한 분석은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모형'과 정치엘리트들의 '전략적 선거활동모형'의 설명력을 동시에 검증해 볼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한국사례분석

이 장에서는 위에서 검토한 '합리적 선택모형'과 정치엘리트들의 '전략적 선거활동모형'을 한국의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의 각 지역구별 투표율 변화 분석에 적용한다. 이를 위해 우선 소선거구 양당제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정치엘리트들의 선거활동에 대한 법적·제도적 제약이 상대적으로 약한 미국적 선거환경에서 발전한 위의 두 이론을 한국 선거 분석에 적용하는데 있어서의 적실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한국의 선거제도와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모형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모형'은 소선거구 선거방식과 양당경쟁체제가 정립된 상황에서 발전한 이론이다. 유권자의 투표참여에 따른 기대효용 계산을 구성하는 이익(B)항은 지지정당 후보가 당선되었을 때 얻게 되는 이익으로 각 정당의 정책적 선호가 뚜렷이 구별되는 양당제적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페리존과 피오리나(1974)에 의해 재해석된 확률(P)항 역시 두 정당의 후보자가 한 표라도 더 얻고자 경쟁하는 소선거구 양당제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합리적 선택모형'을 경험적 분석에 적용하는 경우 당선 가능성이 높은 두 정당의 선거경쟁도(closeness)는 확률(P)항에 대한 대표적인 경험적 지표로서 된다.

그러면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가 양립하는 2표병립제(박찬욱 2005; 이현우 2004; 조성대 2006)⁴⁾의 선거방식을 취하고 다당제적 특성을 지니는 한국의 선거제

도는 합리적 선택모형이 지닌 이론적 논의와 경험적 예측을 적용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다시 말해, 한국의 선거제도는 당선 가능성이 높은 두 정당 사이의 선거경쟁도를 확률(P)항의 경험적 측정지표로써 사용하는데 문제점을 야기하는 특수성을 지닌 것인가? 본 논문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 2표병립 다당제의 특성을 지닌 한국의 선거제도하에서도 확률(P)항의 경험적 측정지표로 선거경쟁도를 이용하는데 이론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을 주장한다. 단지, 한국의 선거제도는 선거경쟁도를 이용하여 투표율을 분석하는 경우 소선거구 양당제를 통해 이루어지는 선거분석에 비해 선거경쟁도가 투표율 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의 강도를 낮추는 효과가 예상된다.

우선, 이론적 측면에서 선거경쟁도를 확률(P)항의 경험적 측정지표로 삼는데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의 선거제도가 유권자의 투표참여에 따른 기대효용 계산 항목 가운데 확률(P)항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를 살펴보자. 첫째 한국 국회의원 선거방식인 2표병립제의 정의에 따르면 다수대표에 의한 선거와 비례대표제에 의한 선거가 연계되어 있지 않고 의석배분이 독자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유권자들은 두 측면에서 선거경쟁의 치열함을 인식하게 될 여지가 있다. 하나는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에 따라 이루어지는 후보자간 경쟁에서의 치열함이고 다른 하나는 비례대표제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당간 경쟁의 치열함이다. 이 가운데 각 지역구 유권자들이 후자를 통해 선거 경쟁의 치열함을 인식할 것인가는 의문시된다. 왜냐하면 정당간 경쟁은 전국적 수준에서 이루어질 뿐 아니라 유권자들의 정당에 대한 투표는 지역구 수준에서의 정당간 경쟁에 좌우되기보다는 자신들이 지닌 정당에 대한 선호를 충실히 따르는 경향(sincere voting)이 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2표병립제의 선거제도에서도 지역구 수준에서 선거경쟁도는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에 따른 후보자 경쟁을 통해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2표병립제가 유권자의 투표참여에 따른 기대효용 계산에서 확률항(P)보다는 이익(B)항과 관련이 있다는 조성대(2006)의 논의는 주목할 만하다. 그에 따르면, 2표병립제는 유권자의 투표참여에 따른 기대효용 계산에 이용되는 이익(B)항의

4) 박찬욱(2005)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국회의원 선거에 시행되고 있는 '1인 2표제'는 '2표병립제'와 '2표혼합비례제'로 양분되는 '2표혼합제' 가운데 다수제선거와 비례대표제선거가 연계되어 있지 않아 그 의석배분이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2표병립제'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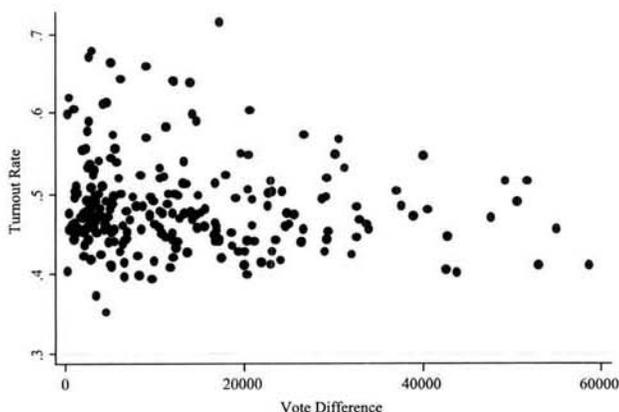
일반적 요소인 지지정당 후보가 당선되었을 경우 얻게 되는 이익 뿐 만 아니라, 비례대표제에 따른 정당지지 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지정당의 득표를 증가시킴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이라는 이익(B)을 구성하는 추가적 요소를 부여한다. 결국 2표병립제는 유권자들이 선거경쟁도를 인식하는데 있어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의 선거제도와 동일한 환경을 부여하며, 유권자의 기대효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확률(P)항에 대한 재해석보다는 이익(B)에 대한 재해석과 관련된다.

둘째, 한국의 선거가 다당경쟁의 특성을 띠는 것은 당선가능성이 높은 주요 정당 이외의 제3당을 지지하는 다수의 유권자층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들이 당선가능성이 높은 상위 두 정당간의 경쟁이 아니라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을 중심으로 선거경쟁의 치열함을 인식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다시 말해 제3당 지지자들이 당선 가능성이 높은 상위 두 정당을 통해 선거경쟁도를 인식하지 않는 경우 '합리적 선택모형'에서 제시하는 선거경쟁도 지표를 한국적 상황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는 것이다. 본 연구는 제3당 지지자들 역시 해당 지역의 선거경쟁의 치열함은 당선 가능성이 높은 두 정당의 경쟁으로부터 파악한다고 판단한다. 2표병립제에 의해 자신의 지지정당에 대한 선호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 조건하에서 제3당 지지자들이 해당 지역구내의 후보자 경쟁의 치열함을 자신이 지지하는 당선 가능성이 낮은 정당 후보를 통해 파악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이다. 박찬욱(2005)의 2표병립제 하에서의 분할 투표에 대한 논의나 조성대(2006)의 전략적 투표에 대한 논의는 이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조성대(2006)의 경우 유권자들이 지역구 후보자 투표에서 얻게 되는 이익은 제3당 지지자일 경우에도 상위 두 정당 후보자로부터 얻는 이익으로 치환될 필요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 결국 제3당 지지자일 경우에도 지역구 후보자 투표의 경우 당선가능성이 지지자 결정의 주요 요인이기 때문에 지역구 후보자 경쟁의 치열함에 대한 인식 역시도 상위 두 정당 후보자의 경쟁으로부터 파악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합당하다 할 것이다.

'합리적 선택모형'이 제시한 선거경쟁도를 한국 선거의 경험적 분석에 적용한 기존 문헌은 적지않다(예를 들어 황아란 1996). 이러한 연구는 한국의 투표율 분석에 '합리적 선택모형'의 적용이 적실성을 지닌다는 암묵적 동의에 기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론적인 측면에서 선거경쟁도라는 개념을 한국의 현실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해서 그러한 개념을 한국 선거의 경험적 분석에 적용할 때

동일한 강도의 설명력을 지닐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 오히려 본 연구는 한국 선거의 투표율 분석에 선거경쟁도가 설명력을 지닐 수 있을지라도 두 변수 사이의 관계는 상당히 약할 가능성이 높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2표병립제가 조성대(2006)의 논의와 같이 유권자들의 투표참여에 따른 기대효용 계상의 이익(B)항의 값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한다면 유권자들의 투표참여 결정에 미치는 선거경쟁도의 영향은 이익(B)항에 의해 상당히 상쇄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다수의 당이 경쟁한다는 점에서 유권자들에게 어떤 정당 후보가 당선권에 근접해 있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에 어려움을 가져오고 그만큼 당선 가능성이 있는 양대 정당 사이의 선거경쟁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방해한다고 할 수 있다.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전국적 수준에서는 유효경쟁정당수가 3.54로 다당제적 특성을 여실히 드러낸 반면 지역구 평균 유효경쟁정당수는 2.48로 양당제적 특성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효경쟁정당수가 2값에 더욱 근접한 미국의 하원선거와 비교할 때 지역구 수준에서도 한국의 유권자들은 상대적으로 선거경쟁도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힘들었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만큼 투표율 변화에 대한 선거경쟁도의 설명력은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위의 논의를 종합해볼 때, 한국의 선거제도는 투표율 분석을 위해 '합리적 선택 모형'을 적용하는데 이론적 적실성을 훼손하지는 않으나 모형이 제시하는 선거경쟁도의 영향력은 상당히 약화시키는 특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예측은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일부 확인된다. <그림 1>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의 각 지



<그림 1> 투표율과 1~2위 후보자간 득표차

역구별 투표율과 1~2위 후보자간의 득표차간의 산점도(scatter plot)이다. 1~2후보자간 득표차가 적을수록 선거경쟁도가 높기 때문에 그림에 나타난 약한 부(-)의 상관관계는 사실상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경쟁도와 투표율 사이에 약한 정(+)의 상관관계를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약한 상관관계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와 그러한 강도가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것인지는 경험적 분석 결과를 통해 논의하도록 한다.

2) 한국의 선거제도와 정치엘리트들의 전략적 선거활동모형

정치엘리트들의 '전략적 선거활동모형'은 선거경쟁도 자체가 직접적으로 유권자들의 투표참여를 유도하지 않고 경쟁적 선거에 대처하는 정치엘리트들의 전략적 선거활동이 매개됨으로써 투표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또한 정치엘리트들의 전략적 선거활동을 경험적으로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유권자 1인당 선거비용지출액을 사용하고 있다.

'전략적 선거활동모형'을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하는 경우 이론적인 측면에서 한국 선거의 다당제적 성격이 갖는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 하원의원 선거의 경우 양당제적 성격으로 인해 정치엘리트들의 전략적 선거활동을 고려할 때 민주당과 공화당이라는 양당 후보자 및 선거운동본부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가능하다. 이에 비해 다당제적 성격을 지닌 한국의 경우 각 지역구 선거경쟁에 참여하는 모든 정당 후보자 및 선거운동본부의 활동을 고려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본 연구는 각 지역구의 유효경쟁정당수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 생각한다. 다시 말해, 유효경쟁정당수는 당선 가능성이 있는 정당의 수치이기 때문에 이는 전략적 선거활동을 전개하려는 동기를 지닌 정치엘리트들의 숫자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유효경쟁정당수가 3인 지역구의 경우 3명의 후보자의 선거활동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이 지출한 선거비용지출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전략적 선거활동모형'을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의 경험적 분석에 적용하는 경우 '합리적 선택모형'에 비해 좀 더 복잡한 문제에 봉착한다. 우선, 전략적 선거활동에 대한 경험적 지표로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1~2위 후보자의 유권자 1인당 선거비용지출액의 총합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자. 이는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 분석과 관련하여 두 가지 요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첫째, 유권자 1인

〈표 1〉 후보자 1인당 선거비용 비교

	1인당 평균 지출한도액	1인당 평균 실지출액
한국의 18대 총선	1억 8,700만원	1억 6,962만원
미국의 2008 하원선거		\$487,739

자료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한국), 연방선거관리위원회(미국)

당 선거비용지출액과 관련하여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는 후보자 1인당 선거비용지출액의 법정상한선⁵⁾을 규정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1〉은 제18대 한국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1인당 선거비용지출한도액과 실제지출액을 2008년 미국 하원의원 선거 후보자들의 지출액과 비교한 것이다. 〈표 1〉에서 관찰되듯이 미국의 경우 각 후보자의 선거비용지출액의 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2008년의 선거에서도 기존의 문헌(최명·백창재 2004, 260)에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후보자 1인당 평균 50만 달러에 근접한 막대한 자금을 지출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의 경우는 그 1/3에 정도에 해당하는 선거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는 후보자 1인당 선거비용지출액에 대한 한도액을 규정하고 있는 한국과 그렇지 않은 미국의 선거분석에 동일한 측정지표인 후보자들의 선거비용지출총액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함의한다.

본 논문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선거비용지출 한도액이라는 제도적 장치가 존재한 한국적 상황에서 미국의 선거에서 선거비용지출액이 지닌 동일한 의미를 측정할 수 있는 관찰등가성(observational equivalence)을 지닌 새로운 지표를 개발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미국적 상황에서 선거비용의 지출액이 정치엘리트들에게 의미하는 바와 해당 선거구 유권자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치엘리트들에게 선거비용지출액은 선거경쟁의 치열함에 대한 반응을 의미한다. 따라서 치열한 선거경쟁이 일어나는 선거구와 그렇지 않은 선거구를 고려하는 경우 전자의 선거구의 후보자들은 더 많은 선거비용을 지출하고자 하고 후자는 전자에 비해 덜 지출하는 경향을 띠게 된다. 치열한 선거경쟁이 일어나는 선거구의 유권자의 경우 정치엘리트들의 더 많은 선거비용 지출로

5) 공직선거법 121조에 따르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각 후보자가 지출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한도액=1억원+(인구수×200원)+(읍·면·동수×2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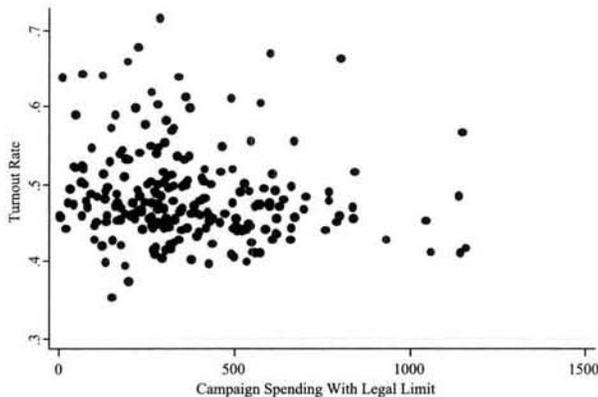
인해 더 많은 TV선거광고 및 더 많은 전화홍보, 문고리 전단지(door hanger) 등 직접적, 간접적으로 더 빈번한 후보자 접촉 기회를 지니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잦은 후보자 접촉의 기회를 가질수록 선거의 치열함을 쉽게 인식할 수 있거나 각 후보자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을 늘릴 수 있거나 또는 투표에 참여해야 할 의무감을 더 느낄 수 있는 등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⁶⁾

그렇다면 법정한도액이 설정되어 있는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후보자에게나 지역구 유권자에게 위와 같은 동일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선거비용지출과 관련된 지표를 발견할 수 있는가? 본 논문은 각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지출 한도액에서 실제선거비용지출액을 뺀 나머지 값이 미국 선거에서의 후보자의 선거비용지출총액과 유사한 의미를 지닌 경험적 지표로 간주한다. 여기서 동일한 의미가 아닌 유사한 의미인 이유는 이 변수가 투표율에 미치는 영향력은 선거비용지출총액이 투표율에 미치는 영향력과 역관계에 놓이기 때문이다. 즉 치열한 경쟁에 처해있는 한국의 지역구 후보자의 경우 가능한 선거비용지출 한도액에 근접한 지출을 통해 유권자와의 직접적, 간접적 접촉의 기회를 늘리려 할 것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법정한도액과 실제지출액의 차이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이러한 차감값이 적을수록 투표율 상승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결국 선거비용지출에 대한 법정한도액을 설정해 두고 있는 한국의 선거제도는 그 한도액을 넘을 수 없다는 장벽을 모든 후보자에게 동일하게 부여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으며 그 결과 후보자들이 선거경쟁의 치열함에 대처하기 위해 지출하는 선거비용은 그 한도액 내에서만 변화를 보일 수 있는 것이다. 이를 고려할 때, 법정한도액과 실제지출액의 차는 미국식 선거비용지출액이 측정하고자 하는 정치엘리트들의 선거활동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 한국의 정치엘리트들의 선거활동을 측정함으로써 한국과 미국 선거 분석 사이에 관찰등가성을 지닌 지표라 할 수 있다.

'전략적 선거활동모형'의 경험적 지표를 한국 선거분석에 적용할 때 제기되는 두 번째 문제점은 그 지표가 1~2위 후보자의 선거비용액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미국 선거의 양당제적 요소를 반영하는 것으로 다당제적 성격을 띠는 한

6) 엘드리치(Aldrich 1993)의 용어를 빌면 이는 정치엘리트들의 전략적 선거활동을 통해 유권자들은 자신의 투표참여의 기대효용 계산에 있어서 P값이나 B값, 또는 D값 등을 증가시키거나 C값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국 선거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위에서 '전략적 선거활동모형' 적용의 이론적 적실성을 논의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은 지역구별 유효경쟁정당수를 고려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각 지역구의 전체 후보자의 선거비용지출액에 대한 자료를 얻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경험적 자료를 통해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인정하면서 본 연구는 각 지역구별로 1~2위를 차지한 후보자들의 선거활동에 한정하고자 한다. 다행히 이러한 한계가 경험적 분석에 포함된 228개 지역구 가운데 133개의 지역구의 유효경쟁정당수가 2개에 해당하며⁷⁾ 지역구 평균 유효경쟁정당수가 2.48개로 양당제적 성격에 근접한다는 점에서 분석 결과에 중대한 오류(bias)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진 않는다. 또한 오류가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고려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정치엘리트들의 선거비용지출액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는 점에서 정치엘리트들의 역할을 저평가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아래의 한국 선거에서 정치엘리트들의 선거활동이 투표율에 미치는 영향력은 사실상 가장 낮은 강도를



〈그림 2〉 투표율과 법정한도액하의 선거비용지출액

7)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각 지역구별 유효경쟁정당은 대구동구를 지역구에서 최소 1.44개와 충남금산논산계룡에서 최대 5.48개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각 지역구의 정치엘리트들의 수효는 1명에서 5명까지 다양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들 후보자 전체에 대한 선거비용지출액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지역구 평균 유효경쟁정당수를 이용하고자 한다.

추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논의에 따른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의 각 지역구별 투표율과 유권자 1인당 1~2위 후보자의 법정한도액에서 실지출액을 뺀 선거비용의 총합과의 관계는 <그림 2>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는 이 두 변수 사이에 약한 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약한 상관관계가 가장 낮은 강도에 대한 추정치라는 점에서 경험적 분석을 통해 통계학적으로 유의미성을 드러내는 지는 흥미로운 질문이라 할 수 있다.

3) 경험적 분석

(1) 데이터, 가설, 변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의 지역구 수준의 후보자에 대한 투표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공개된 투표율 분석 자료를 이용하였다.⁸⁾ 각 후보자의 선거비용지출액과 관련해서는 각 후보가 선관위에 신고한 선거비용지출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시한 자료를 이용하였다.⁹⁾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은 46.1%로 16대 총선의 57.2%, 17대 총선의 54.8%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또한 지역구별로는 경기도 시흥시울의 경우가 35.3%로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였으며 경상남도 하동·남해 지역구가 75.7%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지역구에 따라 40%가 넘는 투표율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지역구 투표율에 관한 자료와 비교할 때, 분석에 이용된 선거비용지출액에 관한 자료는 각 지역구에서 경쟁한 모든 후보자의 선거비용지출액을 담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상당히 제한적이다. 또한 서울동대문구를 지역구를 포함하여 몇 개의 지역구의 경우 당선자의 선거비용지출액만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경남창원시갑 지역구의 경우에는 1~2위 후보자의 선거비용지출액이 두 후보의 선거비용지출 법정한도액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의 두 경우와 같이 후보자들의 선거비용지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분석 자료는 아래의 온라인 주소에서 수집하였다. http://www.nec.go.kr/new_info/info/election/(방문일자 2008년 11월 10일)

9) 개별 후보자의 선거비용지출액과 지출내역에 대한 정보는 선거직후 3개월 동안만 일반인에게 공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이용된 선거비용자료는 서울시립대 임성학 교수가 이 기간 동안 수집한 자료이다.

출액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신뢰성이 떨어진 지역구를 분석에서 제외하고 남은 228개 지역구의 투표율 변화 원인을 분석한다.¹⁰⁾

본 연구의 주요 가설은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모형'과 정치엘리트들의 '전략적 선거활동모형'으로부터 도출된다. 선거경쟁도와 투표율의 관계에 대한 '합리적 선택모형'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선거경쟁도에 대한 지표로서 각 지역구의 1~2위 후보자간 '득표수'의 차이를 이용한다. 이는 기존의 한국 문헌들(황아란 1996, 1998 인용)에서 이용되어 오던 각 지역구의 1~2위 후보자간 '득표율'의 차이와는 구분되는 것으로 콕스(1988)의 논의에 따른 것이다. 콕스(1988)는 1-2위 후보자간 득표율의 차이를 통해 지역구의 투표율의 변화를 분석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개념적(conceptual), 산술적(econometric)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종속변수인 투표율(총 투표수/총 유권자수)의 분자를 구성하는 총 투표수가 독립변수인 득표율(후보가 얻은 득표수/총 투표수)의 분모에 위치함으로써 둘 사이에 실질적인 상관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산술적으로 허위적 상관관계(spurious relationship)을 낳을 가능성이 있음은 주목할 만한 점이다. 예를 들어 <표 2>의 상황을 살펴보자.

<표 2>는 총유권자수와 1~2위 후보의 득표수의 차이가 동일한 두 지역구(D1, D2)에서 총투표수에 차이가 있는 경우를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당일 이전까지 두 지역구의 유권자들이 느끼는 선거경쟁이 치열한 경우에 속한다. 문제는 유권자들이 느끼는 선거경쟁의 치열함이 동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당일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수(총투표수)의 차이로 인해 투표율에 차이가 발생했음은 물론 1-2위 후보자의 득표율의 차이 역시도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총 투표수에서의 차이는 결국 투표율과 1~2위 후보자의 득표율 사이에 산술적으로 부(-)의 관

<표 2> 투표율과 1~2위 후보자간 득표율이 낳을 수 있는 허위적 관계에 관한 일사례

선거구	총 유권자수	총 투표수	1~2위 후보 득표율 차이	투표율	득표율 차이
D1	10,000	4,000	200	40%	5%
D2	10,000	8,000	200	80%	2.5%

10) 경험적 분석에서 제외된 지역구의 명칭은 본 연구의 맨 마지막에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계를 만들게 되며 이러한 부(-)의 관계는 유권자들이 느끼는 선거경쟁의 차이와는 상관없는 허위적(spurious)인 관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콕스(1988)의 위와 같은 논의에 따라 본 논문은 1~2위 후보자간 득표의 차이를 통해 선거경쟁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삼고자 한다.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의 지역구별 투표율 자료를 통해 볼 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의 경우 1~2위 후보간 득표차가 129표로 가장 경쟁적인 선거양상을 보였으며, 광주광역시 북구을의 경우 58,551표의 차이로 가장 큰 표 차이로 당선자를 결정한 지역구에 해당하였다. 또한 분석대상에 포함된 228개 지역구 평균 1~2위 후보간 득표차는 13,401이었다. '합리적 선택모형'에 따른 '선거경쟁도' 변수와 투표율의 관계를 정리하면 아래의 가설1과 같다.

가설 1: 지역구 수준에서, 당선가능성이 높은 두 정당 후보의 선거경쟁도가 증가할수록 해당 지역구의 투표율은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정치적 엘리트들의 전략적 선거활동이론은 선거경쟁의 치열함이 직접적으로 유권자의 투표 참여결정에 영향을 준다고보다는 치열한 선거경쟁은 정치 엘리트들의 위기감을 자극하고, 이에 대처하는 정치엘리트들의 전략적 선거활동의 결과 투표율의 상승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정치엘리트들의 전략적 선거활동을 측정하는 지표로 이용되는 대표적인 것은 각 지역구별로 개별후보자의 선거비용지출액을 종합한 지역구 총선거비용지출액을 지역구 총선거인수로 나눈 유권자 1인당 후보자의 선거비용지출액이다(즉, 1~2위 후보자의 선거비용지출합/총유권자수). 특히 양당 경쟁이 이루어지는 미국의 하원 선거의 경우 양당 후보자들이 유권자 1인당 지출한 선거비용의 합을 일반적 지표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선거비용지출의 한도액을 설정하고 있는 한국적 현실에서는 동일한 지표가 정치엘리트들의 동일한 선거활동에 대한 측정지표로서의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이러한 인식을 통해 본 논문은 한국의 선거제도에 관찰등가성을 지닌 지표를 다음과 같이 두 단계로 제시한다. 우선 1~2위 후보자가 각각에 대하여 선거비용지출 법정한도액에서 각 후보가 실제지출한 선거비용의 차의 합을 구한다. 다음으로 이렇게 구해진 합을 지역구 총선거인수로 나누어 유권자 1인당 1~2위 후보가 지출하지 않고 남긴 선거비용을 구한다. 각 지역구별로 이런 방식으로 구해진 비

용은 '선거비용 역지출'이라는 이름으로 변수화 하였다. 따라서 이 변수의 값이 크다는 것은 주어진 법정한도액 내에서 많은 돈을 남기는 선거를 치우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정치엘리트들의 해당 지역구의 선거경쟁이 치열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적은 비용을 지출하는 선거운동을 전개했음을 의미한다. 반대로 해당 지역구의 선거경쟁이 치열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정치엘리트들이 법정한도액내에서 가능한 더 많은 선거비용을 지출하려는 전략을 취하는 경우 이 변수의 값은 작아진다.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각 지역구의 1~2위 후보자 선거비용지출액과 해당 선거구의 법정한도액을 살펴보면 대전동구의 경우 1~2위 후보의 선거비용지출액 총합이 두 후보의 법정한도액의 총합에 거의 근접하여 '선거비용 역지출'이 0의 값에 가까웠다. 그에 반해, '선거비용 역지출'이 가장 큰 곳은 부산남구갑구로 유권자 1인당 1~2위 후보자가 법정한도액을 다 쓰지 않고 남긴 선거비용의 합은 1158원이었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228개 지역구 평균 '선거비용 역지출'은 367원에 해당하였다. 이와 같은 논의를 통해 개발한 선거비용지출이라는 변수와 투표율과의 관계를 정리하면 아래의 가설 2와 같다.

가설 2: 지역구 수준에서, 1~2위 후보자의 유권자 1인당 선거비용역지출이 증가할수록 투표율은 감소할 것이다.

위에서 제기한 두 가설은 지역구 수준에서 투표율의 변화에 선거경쟁도와 선거비용 역지출이 각각 독자적인 영향력이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선거경쟁도와 선거비용역지출 그리고 투표율의 변화 사이에 이론적 연결성을 생각할 때 투표율에 미치는 두 변수의 독자적인 영향력은 상호 통제를 통해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합리적 선택모형과 전략적 선거활동모형 각각에 대한 분석이외에 두 변수를 동시에 하나의 회귀분석모형 안에 두는 통합모형을 통해 두 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을 평가한다.

한편, 각 모형이 제시하는 중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각 지역구가 지니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선거환경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인구구성에 대한 통제변수로 각 지역구의 '총유권자수' 및 '60세 이상 노인인구'를 이용하였으며, 각 지역구의 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하기 위해 '도시화정도'를 이용하였다. 특히 '도시화정도'와 관련하여 기존의 한국 문헌은 다양한 측정방안을 제시하고 있다.¹¹⁾ 본

논문은 박찬욱(1996)의 세분화에 근거하여 대도시, 도시지역, 도농복합지역, 농촌 지역이라는 4개의 범주(category)를 설정하였다. 또한 연구의 정밀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구역명만으로 지역을 판별하지 않고 공직선거법상의 선거구 구역표 및 각 선거구 내 투표구별 유권자 비율을 대조하여, 총 유권자 중에서 도시의 동(洞) 지역 유권자와 농촌의 읍, 면 지역 유권자 공존비율이 30~70% 사이인 경우에만 도농복합으로 분류하였다.¹²⁾

각 지역구가 지닌 선거환경적 특성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현직의원 교체여부', '친박연대 후보자의 경쟁참여여부' 및 '유효경쟁정당수'를 이용하였다. '현직의원 교체여부'는 현직의원의 프리미엄을 고려할 때 지역구내 이들의 교체를 가져올 정도의 불만이 존재하는지를 통제하는 것이다. '친박연대 후보자의 경쟁참여여부'의 경우 한나라당 후보자와 정치적 정책선호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친박연대의 후보자가 경쟁이 참여하는 경우 이는 유권자에게 유사한 정책적 입장 내에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투표율의 상승을 가져오거나 또는 후보자 분열에 따른 정치적 실망감을 통해 투표율의 감소를 가져올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통제하기 위함이다. 또, '유효경쟁정당수'는 많은 수의 경쟁력 있는 정당이 선거경쟁을 하는 경우 그만큼 유권자가 선거경쟁의 치열성을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점과 정치적 분열에 대한 회의를 통해 투표불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통제한다. 마지막으로 한국 선거분석의 중요변수로 취급되는 지역성이 각 지역구의 투표율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기 위해 서울, 경기, 충청, 전라, 경상이라는 다섯 개의 지역에 관한 가변수(dummy variable)를 이용하였다.

(2) 경험적 분석 결과

표 3은 한국의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의 총 245개 지역구 가운데 228개 지역구에서 관찰되는 투표율의 변화를 회귀분석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종속변

11) 예를 들어 박찬욱(1996)은 4개의 범주화를, 황아란(1996, 1998)은 2개의 범주화를 제시한다.

12) 이러한 분류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시 을 선거구의 경우에는 총 유권자 수 17만 1,320명 중 2개 동(도농동, 지금동) 유권자가 21%(3만 5,841명)에 불과하여 도시지역이나 도농복합지역이 아닌 농촌지역으로 분류된다.

수는 각 지역구의 투표율로 하고 회귀분석의 기법으로는 보통최소제곱추정법 (Ordinary Least Squares Estimation)을 이용하였다. <표 3>은 합리적 선택 모형, 전략적 선거활동 모형, 그리고 이 둘의 통합모형의 투표율 변화에 관한 설명력을 보여 준다. 두 모형의 중심가설은 각 지역구 수준의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선거환경에 대한 변수, 그리고 지역성을 통제한 이후 검증하였다.

<표 3>의 결과는 먼저 각 통제변수가 투표율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세 모델을 통해 공통적으로 일반적 예측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세 모델을 통해 공통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는 '도시화정도'의 경우 도시화가 진행된 지역구일수록 투표율이 낮아지는 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기존의 여러 문헌들에서 제시되었던 투표율의 도저촌고 현상(윤천주 1986; 황아란 1995)이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여전히 관찰되었음을 의미한다. 60대 이상 인구가 지역구 총선거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60대 이상 인구'이 경우 노인 층의 비율이 높은 지역구일수록 투표율이 높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이가 들수록 투표에 참여하는 경향이 높다는 투표참여에 대한 인구학적 주장이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증명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각 지역구의 선거경쟁의 맥락을 보여주는 '친박연대경쟁여부', '현직자퇴출여부' 및 '유효선거경쟁정당수'의 경우, 유효선거경쟁정당수만이 투표율의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력 있음이 보여준다. 그러나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친박연대후보와 같이 다양한 정책선택호가 제시되는 선거환경이나 현직자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지역구의 경우 투표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정(+)의 회귀계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선거맥락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취급되는 지역성의 경우 투표율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경기, 전라 지역만이 비교대상인 강원, 제주 지역 지역구보다 더 낮은 투표율을 보이는 경향이 있음이 나타난다. 이러한 투표율에 관한 지역적 특성이 지속적이고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할 만한 명확한 이론적 근거를 찾기는 힘들다. 오히려 이러한 지역적 차이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보이는 단편적 현상일 가능성이 높으며 선거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 생각된다.

본 논문이 검증하고자 하는 중심가설은 <표 3>에 나타난 두 변수인 '선거경쟁도'와 '선거비용역지출'과 관련된다. 먼저 합리적 선택모형에 따른 선거경쟁도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한국 선거에서도 1~2위 후보자간 1000표의 차이마다 0.09% 만큼 투표율이 낮아지는 영향력을 지니며 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함을 알 수 있

다. 1~2위의 후보자의 표 차이가 많아진다는 것이 선거경쟁도가 낮아짐을 의미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선거경쟁도가 높아질수록 투표율이 상승할 것이라는 이론적 예측에 부합하는 결과인 것이다. 다음으로 전략적 선거활동모형에 나타난 '선거비용 역지출'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후보자들이 선거비용한도액 대비 실선거비용지출액에서 해당 지역구 유권자 1인당 100원씩 덜 쓸수록 약 0.57%의 투표율의 감소가 발생함을 보이고 있다. 고려대상인 228개 지역구 후보자들의 해당 지역구 유권자 1인당 선거비용 평균지출액이 1792원이었음을 고려할 때 대략 선거비용지출을 반으로 줄일 경우 해당지역구의 투표율이 5.7%정도 감소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선거경쟁도'와 '선거비용 역지출'이 한국 국회의원 선거의 지역구별 투표율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합모형을 통해 더욱 흥미로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통합모형은 두 변수를 동시에 고려한 경우 '선거경쟁도'가 투표율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력이 현저히 감소함을 보여준다. 동시에 '선거비용 역지출'의 영향력 역시도 감소하였다. 통합모형의 결과는 '선거비용 역지출'이 투표율에 미치는 영향력이 전략적선거활동모형에서 갖는 영향력에 비해 후보자들이 선거비용한도액 대비 실선거비용지출액에서 해당 지역구 유권자 1인당 100원씩 덜 쓰는 경우 0.9% 정도의 감소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선거경쟁도'와 '선거비용 역지출' 각각이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 변화에 독자적인 영향력을 지니고 있지만 '선거경쟁도'의 실질적 영향력은 정치엘리트들의 전략적 선거활동을 통해 상당정도 감소될 수 있음을 함의한다. 특히, 각 모형의 수정결정계수(Adjusted R-Squares)에 따르면 합리적선택모형에 '선거비용 역지출' 변수를 추가하였을 경우 지역구 투표율의 변화 가운데 2.4%의 변화를 더 설명할 수 있었던 반면, 전략적선거활동모형에 '선거경쟁도' 변수를 추가하였을 경우 지역구 투표율의 변화 가운데 0.5%라는 매우 적은 변화량만을 더 설명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모형간 설명력의 차이는 수정결정계수를 이용한 F값 검증(F-test)을 통해서 통계학적 유의미성을 확인할 수 있다. F값 검증은, 통합모형이 '선거비용 역지출' 변수를 통해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 합리적선택모형의 설명력을 향상시켰던 반면, '선거경쟁도' 변수를 통해서 전략적선거활동모형의 설명력을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시키지 못했음을 보여준다.¹³⁾

결국,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의 지역구별 투표율의 변화에 미치는 원인을 경험적

(표 3)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별 후보자지지 투표율 변화

	합리적선택모형	전략적선거활동모형	통합모형
	회귀계수(t-검정값)	회귀계수(t-검정값)	회귀계수(t-검정값)
도시화정도	-0.022 (-5.52)***	-0.018 (-4.37)***	-0.018 (-4.55)***
60대 이상 인구	0.019 (4.98)***	0.021 (5.46)***	0.020 (5.48)***
선거경쟁도	-9.18×10^{-7} (-3.20)***		-5.58×10^{-7} (-1.87)*
선거비용 역지출		-5.74×10^{-5} (-4.40)***	-4.85×10^{-5} (-3.51)***
친박연대경쟁여부	0.003 (0.38)	0.003 (0.38)	0.002 (0.30)
현직자퇴출여부	0.003 (0.53)	0.006 (0.99)	0.004 (0.72)
선거경쟁정당수	-0.013 (-1.97)**	-0.007 (-1.16)	-0.012 (-1.81)*
서울지역	0.007 (0.59)	0.007 (0.61)	0.006 (0.54)
경기지역	-0.043 (-3.77)***	-0.040 (-3.54)***	-0.042 (-3.71)***
전라지역	-0.021 (-1.62)	-0.031 (-2.48)***	-0.025 (-2.00)**
경상지역	0.003 (0.25)	0.001 (-0.07)	0.002 (0.20)
충청지역	-0.010 (-0.79)	-0.020 (-1.57)	-0.017 (-1.30)
총선거인수	-1.92×10^{-7} (-2.08)**	-3.93×10^{-7} (-4.52)***	-3.15×10^{-7} (-3.27)***
상수	0.600 (19.18)***	0.608 (19.77)***	0.615 (19.97)***
Adj R-Squared	0.522	0.541	0.546
분석개체수	228	228	228

참고: 종속변수는 지역구별 후보자에 대한 투표율. * 유의수준 0.1, ** 유의수준 0.05, *** 유의수준 0.01

으로 분석한 위와 같은 결과는 한국의 유권자들이 선거경쟁의 치열함에 대한 인식에 기반한 유권자 자신의 합리적 선택을 통해 투표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치열한 선거경쟁에 대처하고자 하는 후보자들의 선거운동활동에 영향을 받아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유권자들의 투표참여를 유도하는 이

- 13) '통합모형'이 투표율 변화를 설명하는데 '합리적선택모형'의 설명력을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시켰는지를 측정하기 위해(1, 214)의 자유도(degree of freedom) 하에서 F값을 계산하였다 그 결과 F값, 11.31은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함이 나타났다. 이에 반해, '전략적선거활동모형'에 관해서는 동일한 자유도 하에서 F값은 2.36으로 유의수준 0.1에서도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두 요인 가운데 정치엘리트들에 따른 동원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함의를 보여준다.

III. 결론

본 연구는 소선거구 양당제적 선거제도 하에서 발전한 '합리적 선택모형'과 '전략적 선거활동모형'이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의 지역구별 투표율 변화에 대해 지니는 설명력을 분석하였다. 특히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기존 연구가 미미했던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지출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선거비용 법정한도액이 정해진 한국의 선거제도에서 미국적 선거제도 하에서 후보자들이 지출하는 선거비용 변수와 관찰등가성을 지닌 경험적 지표를 제시하고 이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가 보여주는 결과는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의 지역구별 투표율 변화에는 개별유권자의 합리적 선택과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라는 두 변수가 동시에 영향력을 지님을 보였다. 우선, 선거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유권자들은 자신의 한 표가 후보자의 당락에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이에 따라 자신의 투표 참여의 기대효용이 높아지면서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는 개별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에 의해 투표율이 변화하였다. 또한, 치열한 선거경쟁에 대처하기 위해 정치엘리트들은 선거비용지출을 늘리는 것을 자신의 전략으로 삼고 이러한 전략적 행동이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침으로써 투표율이 변화하였다. 여기서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두 변수 가운데 후보자들의 전략적 선거활동의 영향력의 강도가 훨씬 컸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개별유권자들은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별개로 자신의 합리적 선택에 따라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기보다 후보자들이 쏟는 선거운동활동의 강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선거경쟁의 치열함을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투표에 참여하게 되는 수동적 성향이 강하다는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시기적으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라는 한 시점에 한정되어 있고, 집합자료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한국 선거의 투표율의 변화에 관한 일반적 결론이라고 보긴 어렵다. 단지 거시적 수준에서 일반적으로 일컬어지는 중요 변수의

평균적 영향력이 현 시기 한국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 변화에도 존재함을 밝힌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양한 자료 보강을 통한 추후 연구를 제안하고 그러한 결과를 통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개별유권자 수준의 설문자료는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지출과 유권자의 투표 참여 사이에 맺어지는 미시적 연결고리를 발견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후보자들이 지출한 선거비용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자료를 통해서는 선거비용지출 총액으로 측정된 후보자들의 선거운동활동을 더욱 세분화하고 그에 따라 선거운동과 관련된 다양한 지출 항목 가운데 투표율의 변화와 좀 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변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몇 가지 한계와 추후 연구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흥미로운 분석 결과는 유권자들의 낮은 투표율로 인한 현대 대의민주주의의 위기 극복과 정치엘리트들의 취해야 할 선거운동의 방향에 대해 함의점을 지닌다.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관찰되는 낮은 투표율은 후보자들의 적극적인 선거운동과 선전에 의해 극복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높다고 평가되는 한국 사회에서 투표율에 미치는 적극적인 선거운동의 긍정적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선거운동의 방향성에 대한 고찰 역시 필요할 것이다. 특히, 선거비용지출의 범정한도액이 정해진 현실에서 적극적인 선거운동의 필요성은 후보자들이 주어진 한도액내에서 선거비용을 최대한 효과적(effective)으로 지출해야할 것임을 제안하는 것이다. 현 시기 한국의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저효율고비용의 선거운동 방식을 탈피하고 선거비용의 전략적 지출 방안을 수립함으로써 민주주의 위기라 일컬어지는 저투표율의 문제 극복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인다.

투고일 2008년 12월 12일

심사일 2009년 1월 5일

게재확정일 2009년 1월 23일

참고문헌

- 강원택. 2003. 『한국의 선거정치』. 서울: 푸른길.
 김도중·김형준. 2000. “제6대 국회의원 선거결과에 대한 집합자료분석.” 『한국정치학

- 회보』 제34집 제2호, 106-117.
- 김영태, 2000. "제16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참여와 선거경쟁도: 합리적 선택이론의 관점에서."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 발표논문.
- 김육, 1998. "투표참여와 기권: 누가, 왜 투표하는가?" 이남영 편. 『한국의 선거 II』. 서울: 푸른길.
- _____. 2002. "한국 유권자의 투표참여에 관한 통합적 연구방향의 모색." 진영재 편. 『한국의 선거 IV』. 서울: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 김재한, 1993. "투표참여의 합목적성: 14대 대선에서의 기권행태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9권 1호, 89-100.
- 박찬욱, 1993. "유권자의 선거관심도, 후보인지능력과 투표참여의사: 제14대 선거전 설문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선거학회보』 26집 3호, 153-174.
- _____. 2005. "제17대 총선에서 2표병립제와 유권자의 분할투표: 선거제도의 미시적 효과분석." 박찬욱 편.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 분석』. 서울: 푸른길.
- 박찬욱·김형준, 1996. "선거구제와 선거구 획정방식의 개혁방향." 『한국과 국제정치』 제12제 2호, 통권 제24호.
- 박찬욱·김경미·이승민, 2008.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유권자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이념정향이 후보 선택에 미친 영향." 박찬욱 편. 『제17대 대통령선거를 분석한다』. 서울: 생각의 나무.
- 신명순·진영재, 2001. "돈 쓰는 선거의 경험적 분석: 제16대 총선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35권 제4호, 15-29.
- 윤종빈, 2004. "17대 총선결과 평가: 분석과 전망." 『정치·정보연구』 제7권 제1호, 27-52.
- 윤천주, 1986. 『투표참여와 정치발전: 續 우리나라의 선거실태』.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갑윤·이현우, 2000.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요인의 영향력: 14~16대 총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34집 제2호, 149-170.
- 이남영, 1992. "투표참여와 기권: 제14대 국회의원선거분석." 『선거와 한국정치』, 135-159.
- 이종수, 2000. "지방선거 투표율의 결정요인 연구." 『사회과학논집』 제31호, 87-106.
- 이준한·임경훈, 2005. "과연 '중대선거' 인가?: 선거에서 유권자 투표결정요인 분석." 박찬욱 편.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 분석』. 서울: 푸른길.
- 이현우, 2004. "정당투표제 도입의 정치적 효과." 한국정치학회 총선분석 특별학술회의 발표논문.

- 임성학. 2002. "제 16대 총선 선거자금의 조달과 지출 : 인터뷰자료의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제36집 제3호, 245-454.
- _____. 2005. "17대 총선의 선거자금과 정치개혁의 효과." 『한국정치학회보』 제39집 제2호, 196-493.
- 정진민. 1994. "정치세대와 제14대 국회의원선거." 『한국선거학회보』 제28집 1호, 257-274.
- 정희만. 2000. "선거비용제한과 선거공영제." 『공법연구』 제28집 제4호, 115-133.
- 조성대. 2006. "투표참여와 기권의 정치학: 합리적 선택이론의 수리모형과 17대 총선." 『한국정치학회보』 제40집 제2호, 51-265.
- 최명·백창재. 2004. 『현대 미국정치의 이해』.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황아란. 1995. 『한국의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94-9(제189권). 서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_____. 1996. "선거구 특성이 투표율에 미치는 영향: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분석." 『한국정치학회보』 제30집 제4호, 285-298.
- _____. 1998. "국회의원 선거의 당선 경쟁과 선거구요인: 제15대 총선 당선자의 선거 경쟁구도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32집 제3호, 163-186.
- Abramson, Paul R., Abraham Diskin, and Dan S. Felsenthal. 2007. "Nonvoting and the Decisiveness of Electoral Outcomes."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60, No. 3. 500-515.
- Adcock, Robert, and David Collier. 2001. Measurement Validity: A Shared Standard for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Research.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5, No. 3. 529-546
- Aldrich, John H. 1993. "Rational Choice and turnout."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7, No. 1. 246-278.
- Bendor, Jonathan, Daniel Diermeier, and Michael Ting. 2003. "A Behavioral Model of Turnout."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7, No. 2. 261-280.
- Berch, Neil. 1993. "Another Look at Closeness and Turnout : The Case of the 1979 and 1980 Canadian National Elections."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46, No. 2. 421-432.
- Caldiera, Gregory A., and Samuel C. Patterson. 1982. "Contextual Influences on Participation in U.S. State Legislative Election." *Legislative Studies Quarterly* 7. 359-81.
- Cox, Gary W. 1988. "Closeness and Turnout : A Methodological Note." *The Journal of Politics* 50, No. 3. 768-775.
- Cox, Gary W., and Michael C. Munger. 1989. "Closeness, Expenditures, and Turnout in the 1982 U.S. House Election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3. 217-231.

- Downs, Anthony. 1957.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New York: Harper & Row.
- Ferejohn, John A., and Morris P. Fiorina. 1974. "The Paradox of Not Voting: A Decision Theoretic Analysi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8. 525-536.
- _____. 1975. "Closeness Counts Only in Horseshoes and Dancing."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8. 678-690.
- Gilliam, Franklin D. Jr. 1985. "Influences on Voter Turnout for the U.S. House Elections in Non-Presidential Years." *Legislative Studies Quarterly* 10, No. 3. 339-351.
- Hillygus, D. Sunshine. 2005. "Campaign Effects and the Dynamics of Turnout Intention in Election 2000." *The Journal of Politics* 67, No. 1. 50-68.
- Imai, Kosuke. 2005. "Do Get-Out-the-Vote Calls Reduce Turnout? The Importance of Statistical Methods for Field Experiment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9, No. 2. 283-300.
- Jackson, Robert A. 1997. "The Mobilization of U.S. State Electorates in the 1988 and 1990 Elections." *Journal of Politics* 59. 520-537.
- _____. 2002. "Gubernatorial and Senatorial Campaign Mobilization of Voters,"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55, No. 4. 825-844
- Kushner, Joseph, David Siegel, and Hannah Stanwick. 1997. "Ontario Municipal Elections: Voting Trends and Determinants of Electoral Success in a Canadian Province Ontario Municipal Elections: Voting Trends and Determinants of Electoral Success in a Canadian Province." *Canad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Revue canadienne de science politique* 30, No. 3. 539-553.
- Little, Daniel. 1990. *Varieties of Social Explanation: An Introduction to the Philosophy of Social Science*. Westview Press.
- Martin, Paul S. 2003. "Voting's Rewards: Voter Turnout, Attentive Publics, and Congressional Allocation of Federal Money."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7, No. 1. 110-127.
- Matsusaka, John G. 1995. "Explaining Voter Turnout Patterns: An information Theory." *Public Choice* 84, No. 1. 91-117.
- Matsusaka, John G. and Filip Palda. 1999. "Voter Turnout: How Much Can We Explain?" *Public Choice* 98, No. 3. 431-446.
- Nicholson, Stephen P. and Ross A. Miller. 1997. "Prior Beliefs and Voter Turnout in the 1986 and 1988 Congressional Elections."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50, No. 1. 199-213.
- Nickerson, David W. 2005. "Partisan Mobilization Using Volunteer Phone Banks and Door Hangers."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601. The Science of Voter Mobilization. pp. 10-27.

Patterson, Samuel C. and Gregory A. Caldiera. 1983. "Getting Out the Vote: Participation in Gubernatorial Election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7. 675-689.

Riker, William and Peter C. Ordeshook. 1968. "A Theory of the Calculus of Voting."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2. 25-42.

부록

본 연구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의 지역구별 투표율 변화를 분석하면서 후보자들의 선거비용지출액을 하나의 중요한 독립변수로 취급하였다. 그러나 각 지역구별로 선거비용지출액에 대한 자료는 다음의 두 가지 문제점이 관찰되었고 이러한 문제를 지닌 17개 지역구를 경험적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첫째, 몇몇 지역구에서는 1~2위 후보의 선거비용지출액에 대한 정보를 구할 수 없고 단지 1위 후보의 선거비용지출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해당하는 지역구는 서울 동대문구을, 경북 영천시, 경북 경산·청도, 광주광역시 동구, 대구 달성군, 전남 여수시갑, 전남 여수시을 총 7개이다. 둘째, 몇몇 지역구에서는 1~2위 후보의 선거비용지출총액의 합이 이 두 후보의 법정한도액의 총합을 넘어서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자료수집 과정에서 일어나 오류라 생각하고 이들 지역구 역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지역구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을, 경남 창원시갑, 경남 통영·고성, 경남 하동·남해, 광주광역시 북구갑, 제주시갑, 충남 부여·청양, 충북 충주시, 충북 청원군, 충북 음성·진천·괴산·증평, 총 10개이다.

ABSTRACT ■ ■

Two Perspectives on Explaining Variations in Turnout Rate in the 18th Korean General Election

JeongHun Han | Seoul National University

Hyoun-gu Kang |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analyzes the turnout rates at the constituency level in Korean national election by applying the 'rational choice model' and the 'strategic political elites' activity model' to 2008 general elections. It first investigates the applicability of the two models developed from a single member district system with two-party competition into the Korean electoral system characterized by two-ballot mixed system and multi-party competition. By developing an observationally equivalent measure of political elites' strategic campaigning spending in Korean general elections, it shows that the turnout rates are determined by both electoral closeness which has direct impact on voters' calculus of voting and the amount of campaign spending by strategic political elites in response to the electoral competitiveness. In particular, the effect of the second is shown to be stronger than the first. These findings imply that Korean political elites should build effective campaign spending strategies to redress the low turnout rate problem.

Keywords: turnout rate, electoral closeness, campaign spending, two-ballot mixed system, multi-party competition